



< 머릿니 예방 안내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학생들에게 머릿니가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머릿니는 심각한 질환은 아니나 두피를 물어서 흡혈하므로 출혈과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머리를 살펴보고 만약 머릿니에 감염이 되었다면 신속히 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릿니 (Head Lice)	
정의	머릿니(Pediculus humanus capitis)에 의한 감염증
머릿니의 특징	3mm 크기로 3쌍의 다리에 강력한 발톱이 있어 두피 근처 머리카락을 잡고 살며 암컷은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알(서캐)을 생산함.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환자와의 직접적인 머리부위 접촉으로 감염• 침구류나 머리빗 공동 사용에 의해 감염 가능
임상증상	심한 가려움이 주 증상이며 많이 긁어서 진물이나 딱지가 생길 수 있음
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피 및 모발에서 살아있는 애벌레 및 성충을 확인하여 진단• 머릿니 총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근 쪽에 붙어있는 서캐를 확인하여 진단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치료: 머릿니의 성충과 알(서캐)을 몸에서 제거• 약물치료: Pyrethrins과 piperonyl butoxide 또는 Lindane shampoo를 머리에 도포 (사용 시 주의)
합병증	긁음으로 인한 찰과상으로 2차 세균 감염 가능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습니다.• 운동 및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진공청소기 등으로 꼼꼼히 잔류 머리카락을 청소합니다.• 머릿니가 있는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놀거나, 머리를 비비는 행동은 옳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합니다.• 환자와 감염 가능한 물건(모자, 헤드셋, 옷, 수건, 침구 등)과 접촉을 피합니다.• 감염환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 후 건조합니다. (54.4도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 시 사멸)

2019년 11월 25일

정 읍 초 등 학 교 장